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

이 선 정*† · 신 효 식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가정과학연구소

Mate Selection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Seon-Jeong Lee*, Hyo-Shick Shin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Institute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mate selecting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concentrated on married women, to examine the difference among mate selection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276 wives, living in Kwangju that having passed under 5 years after marriage without divorce experien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 mate selection, factor of high-degree was personality, view of value, personal relations, achievement, emotional mature, self-differentiation, degree of affection's expression, sense of humor, charms and condition of health.

Respondents' marital satisfaction score showed 91.75 and this score was higher than median score(62.5).

2. The external factor of mate sele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egree of education, career, order, and sex-role attitude. The internal factor of mate sele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egree of education, career, order,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sex-role attitude.

3. As correlating mate selectional factors to marital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appears in the mate's personality, view of value, emotional mature, personal relations, self-differentiation, condition of health, achievement, charm, sense of humor and degree of affection's expression.

4.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self-esteem, personality and child's number that were explained about 38% by these variables.

In conclusion, to happy marital life must be loved her own self, and above all considered internal factors like personality than external factors in mate selection.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2520, Fax : 062-530-2529
E-mail : overwhelming@hanmail.net

key words: mate selection, marital satisfaction, self esteem, personality

I. 서론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행·불행뿐 아니라 일생동안의 생활의 질, 자녀, 친족,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의 선택은 일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사항이다.

결혼은 두 남녀의 개인적 관계나 사적 계약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이효재 1979) 결혼을 위한 필수 단계인 배우자 선택과정 또한 다양하며 복잡하다. 이러한 배우자 선택의 범위가 통제는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을 기초로 하는 사회는 애정, 사랑, 정서적 매력 등 개인이 추구하는 욕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나 家중심의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 및 유대를 적절히 보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통제되고 결정된다(Adams 1980).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은 결혼이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위한 양쪽 가족의 결합 수단이었기 때문에 가계 존속을 위한 수단이나 가계 계승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서구 사조의 유입과 현대적 교육의 보급으로 남녀간의 교제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결혼에 관련된 규범과 가치의식이 근대화되면서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 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두 사람간의 애정, 인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정서적 동기에 치중하게 되었다.

결혼생활의 성공여부는 주관적인 것이고 또 결혼 전 자원과 결혼 후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요인을 지목할 수는 없으나 부부 동거 기간별 이혼율의 경우 5년 미만의 이혼율이 전체의 28.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통계청 1998) '교제기간 중의 실패'가 결혼 후에 명확해진 것(Bowman, Spanier 1978)으로 '서로'에 대해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대부분 배우자에 대해 깊이 파악해 보지도 않고 외형적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뒤늦게 부부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부부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배우자 선택과정은 결혼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과정(Bowman 1970)으로 비록 결혼생활이 결혼전 교제기간 동안에 완전

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상호합의 정도가 이후 결혼 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양희 1989: 김혜선 1992: 조규현 1980: 홍준숙 1987: Nye, Berardo 1973)를 볼 때 배우자 선택과정이 결혼관계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전 배우자 선택요인 중 결혼만족도를 잘 설명하고 예측해 줄 수 있는 관련변인을 규명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년수 5년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결정시 고려했던 배우자선택요인의 정도와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라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에 관련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복한 결혼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건강한 결혼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1)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라 배우자 선택요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4) 배우자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5)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과 배우자선택요인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배우자 선택

1) 배우자 선택 요인

배우자 선택이 시대적, 사회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영역이

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환이론적 측면에서 배우자 선택은 배우자 선택과 관련되는 경제적 조건, 사회적 계층이나 신분, 사랑, 성, 신체적 매력, 직업, 학벌, 가문 등이 가족과 결혼의 기능 및 유대를 적절히 보장하고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교환된다고 보았다. Murstein(1970)은 배우자 선택의 단계가 진전될수록 신체적 외모, 전문적인 직업, 학벌 등과 같은 자극요인에서 점차 가치에 대한 고려가 더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South(1991)는 미국의 미혼 남녀들의 배우자 선택 선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확고한 직업, 높은 수입, 높은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가진 남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남성은 여성의 매력이나 낮은 연령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나 Wooldredge와 Scheon(1989)은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의 증가, 사회적 지위 향상이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덜 집착하게 한다고 하였다.

김경신 등(1997)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하는 배우자의 외적조건의 경우, 남성은 건강상태, 장래성, 가정환경 등의 조건에서 여성은 장래성, 건강상태, 수입, 직업, 학력 등의 조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선호하였고 내적조건의 경우, 남성은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애정의 표현력의 조건에서, 여성은 대인관계 원만성, 진취성, 정서적 성숙 등의 조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었다.

배우자 선택의 조건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26개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본 정민자(1987)의 연구에서 중요도의 순위는 건강, 성격, 사랑, 생활력, 가치관 순으로 나타나 건강, 성격과 더불어 서로의 주관적인 영역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서구사조의 유입과 현대적 교육의 보급으로 결혼에 관련된 규범과 의식가치 의식이 근대화되면서 점차 애정과 사랑, 인격, 개인적 자질과 매력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면을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가족내의 일정한 규정과 양식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므로 가문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도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배우자 선택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은 개인의 성숙도와 판단능력과 연관되므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신양재(1988)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배우자의 신체적 특성보다는 내면적 특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고 안해옥(1987)은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국가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원한다고 하였다. 임진(199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차가 적은 배우자를 원하고 있으며 연애혼을 선호하고 있었다.

자신이 받은 교육의 정도는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배우자 선택 조건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 정민자(1987)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지표로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주대상으로 한 연구(송재희, 1988)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낮은 교육수준의 배우자를 그리고 여학생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높은 학력을 소유한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경신 등(1997)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1992)의 연구에 따르면, 고졸인 경우가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배우자의 건강을 더 고려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애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배우자를 원하고(안해옥, 1987) 연애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과 관계가 깊다. 장남이 타자녀에 비해 우대되며 중히 여겨지지만, 부모를 봉양하고 체사를 모시고 형제들을 통솔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감으로 장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강은숙(1981)과 이경숙(1980)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조건으로서 배우자의 출생순위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임진(1992)의 연구에서는 형제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첫째인 경우에 연애혼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과 배우자 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 선택시 배우자의 내적인 면을 더 고려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자아분화도는 정신내적이고 인간관계적인 개념으로서 배우자 선택시 자아분화 수준이 자기와 비슷한 정도의 사람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정애랑 1987).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경신 등(1997)의 연구에서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내적조건을 더 선호하며 근대적 성역할 태도가 서로의 작용적인 면을 잘 보완하고 지지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은 하나의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 결혼만족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학자들에 따라 결혼만족의 정의는 각각 상이하다. 김명자(1985)는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만족정도'라 하였으며, 유영주(1979)는 '결혼 생활 전반에 있어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Roach(1981)가 고안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에서의 결혼만족도 개념은 주어진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결혼에 대해 시간적 차원에 따라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혼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한 감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개념은 각 개인의 결혼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한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2) 결혼만족도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은 결혼지속년수를 대변하는 시간적 변수, 세대별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범적 변수로써 부부갈등이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경희 1998)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강은령 1989; 박태은 1983; 이동원 1988; 이선주 1988; 이정연 1987; 최연실 1987). 교육수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증대시켜 결혼생활의 정보 및 의견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함에 보다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부인의 취업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초기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부부역할관에 입각하여 대체로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낮춘다(Spanier, Lewis 1980)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부인의 취업유무 자체가 결혼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부인의 취업동기, 직업지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역할긴장과 역할갈등 등의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pitze 1988; 최규련 1990).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와 비례하여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김화자 1991; 이동원 1988; 이숙현 1988; 최연실, 옥선화 1988)에서 소득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자녀수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계선자(1990), 이숙현(1990)은 자녀의 출생이 부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고선주(1996), 박민숙(1985), 유은희(1974), 이옥진(1992), Spanier와 Lewis(1980)의 연구에서는 자녀는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활동기회 감소 등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대부분 부정 상관을 보여서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최규련 1991).

(2) 심리적 변인

Satir(1975)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기본적 요구로 간주하고,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그의 전체에 따르면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 요소로 각 배우자의 자아존중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아분화는 보다 큰 집단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통합적 존재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분화가 잘 된 개인은 대인관계(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제 삼자와 잘못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게 되어 건전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타인과의 친밀감을 중요시하여 부부 친밀감을 증진시킨다고 한다(Hartman 1981). 많은 연구(고현선 1994; 김희수 1993; 이창만 1992)에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전통적 가족역할관을 지닐수록, 남녀역할에 대해 전통적 고정관념을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명자 1985). 또한 성역할 태도에 주부의 직업유무를 첨가하여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박태운(1983)의 연구에서도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면서 전문직을 가진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근대적 태도를 갖고 비취업인 주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3.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

근대화 도시화에 의해 가족형태가 핵가족화되고 부부관계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 되었고 배우자도 점차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많으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기 가족해체의 증가를 볼 때 결혼전 배우자 선택요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경애(1994)는 사회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자원의 동질성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 선택은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을 주는 결혼 전 요인은 주관적으로 인지한 만족과 부모의 지지로 밝혀졌다. 또한 배우자 선택시 교환자원의 동질성과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매력적일 경우, 부인과 남편 모두 긍정적인 성격일 때 만족도가 가장 높고 결혼전 자원과 결혼의 갈등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원보다 가치관, 역할기대, 성격의 불일치 등 개인적 자원의 불일치가 결혼 후 주요 갈등요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혜경(1986)과 이동원(1988)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는 부부갈등과 긴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며, 결혼전에 성격 및 가치관의 일치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아진다(Heaton et al 1991: 김혜선 1992)고 하였으며 김혜선(1992)은 성격 및 가치관은 인생의 지표로 결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여년이나 상이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해 온 남녀

가 서로의 성격 및 가치관에 대한 파악없이 조화로운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면서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성격과 가치관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대로 올수록 개인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옥선화, 정민자 1996). 또 신체적 매력과 결혼의 행복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연구(정현숙 1999)도 있으나 이경애(1994)는 남편의 신체적 매력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선택요인을 외적요인(연령, 재산, 학력, 외모,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출생순위)과 내적요인(매력정도, 애정의 표현정도,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으로 나누어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기혼여성과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출생순위, 월평균 수입, 출생가족의 형태, 생식가족의 형태, 자녀수, 결혼지속 기간 등이 조사되었고 심리적 변인으로 자아분화수준,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가 조사되었다.

자아분화수준 척도는 Bowen의 이론을 토대로 한 고현선(1994)의 척도와 이경희(1998)가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총 8문항을 구성하였고 자아존중감 척도는 Abbey와 Halman(1992)이 사용한 6문항의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경희(1998)의 척도와 김정란(1999)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 척도는 Osmond와 martin(1975)의 Sex Role Attitude Scale을 기초로 한 정승혜(1988)의 척도와 이경애(199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15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심리적 변인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변인들의 Cronbach' α 값은 .70~.84로 나타났다.

〈표 1〉 배우자선택요인의 요인분석

배우자 선택요인	항 목	요인부하값	고유값	배우자 선택요인	항 목	요인부하값	고유값
외적요인	1. 연령	.662	3.44	내적요인	9. 매력정도	.473	4.56
	2. 재산	.739			10. 애정의 표현정도	.562	
	3. 학력	.721			11. 유머감각	.580	
	4. 외모	.709			12. 정서적 성숙	.773	
	5. 직업	.626			13. 대인관계의 원만성	.782	
	6. 건강상태	.446			14. 성취욕	.731	
	7. 가정환경	.571			15. 자아분화도	.719	
	8. 출생순위	.473			16. 가치관	.753	
				17. 성격	.657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276)

변 인	구 분	N(%)	변 인	구 분	N(%)
연 령	25세 이하	18(6.5)	남편연령	25세 이하	5(1.8)
	26세~30세	169(61.2)		26~30	68(24.6)
	31세~35세	84(30.4)		31~35	165(59.8)
	36세 이상	5(1.8)		36세 이상	38(13.8)
교육수준	고졸	99(35.9)	자녀수	없다	73(26.4)
	대졸	161(58.3)		1명	109(39.5)
	대학원 이상	16(5.8)		2명	94(34.1)
출생가족 형태	핵가족	239(86.6)	본인의 출생순위	장녀	77(27.9)
	확대가족	37(14.4)		중간	141(51.5)
생식가족 형태	핵가족	250(90.6)	막내	58(21.0)	
	확대가족	26(9.4)	남편의 월평균 수입	수입없음	7(2.5)
본인의 월평균 수입	수입없음	121(43.8)		50만원 이하	2(0.8)
	50만원 이하	14(5.0)		51~100	72(26.1)
	51~100	96(34.8)		101~150	118(42.8)
	101~150	36(13.0)		151~250	63(22.8)
	151~250	6(2.2)		251 이상	14(5.1)
	251 이상	3(1.1)	남편의 직업	기능·기술직	50(18.1)
본인의 결혼 후 직업	기능·기술직	10(3.6)		농·수·축산업	1(0.4)
	농·수·축산업	1(0.4)		단순노무직	4(1.4)
	단순노무직	3(1.1)		사무직	107(38.8)
	사무직	46(16.7)		서비스·판매직	16(5.8)
	서비스·판매직	21(7.6)		자영업	34(12.3)
	자영업	11(4.0)		전문·경영 관리직	59(21.4)
	전문·경영 관리직	46(16.7)	무직	5(1.8)	
주부	138(50.0)	결혼년수	1년 미만	59(21.4)	
배우자 선택과 결혼결정	·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선택 후 결정		5(1.8)	1~3년	84(30.4)
	· 부모님의 소개 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결정		37(13.4)	3~5년	133(48.2)
	· 자신의 선택 후 부모님의 승낙 을 받아 결정	227(82.2)	결혼결정시기	6개월 이하	107(38.8)
	· 자신의 선택 후 부모님의 승낙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결정	7(2.5)		7개월~1년	50(18.1)
		1~2년		54(19.6)	
		2~3년		33(12.0)	
			3~4년	15(5.4)	
			4년 이상	17(6.2)	

2) 배우자 선택요인

배우자 선택요인 척도는 강은숙(1981), 홍준숙(1987), 김경신 등(1997)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령, 재산, 학력, 외모,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출생순위, 매력정도, 애정의 표현정도,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등의 총 17문항을 구성하였다. 기혼여성이 결혼전 배우자가 지닌 여러 요인 중 각 문항에 따라 고려했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type 5점 척도이다.

기혼여성의 배우자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 중 주축인자법을 이용하여 Varimax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17항목에서 4보다 높은 요인 부하값(Factor Loading)을 얻었고 배우자선택요인의 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요인1이 .80이고 요인2는 .86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1>.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를 기초로 이경애(1994), 김미숙(198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2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Cronbach' α 값은 .94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년수 5년 이하의 초혼인 기혼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중 276부(비·취업주부 각 13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6-30세가 61.2%로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58.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직업은 사무직과 전문·경영 관리직이 각각 33.4%로 가장 많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년수는 3~5년이 48.2%, 자녀수는 1명이 39.5%로 가장 많았다.

3. 자료분석

본 연구결과는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배우자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변인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량 분산분석과 t-test 및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간 상관계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표 3>의 총 17개의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중 중간점수 (3점)를 넘는 문항은 외적요인에서 학력,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이었고 내적요인에서는 매력정도, 애정의 표현 정도,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 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이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중간점수인 62.5보다 높은 91.7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집대상이 결혼지속년수 5년 미만의 신혼기 주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N=276)

구 분		M	SD	
배우자 선택요인	외적요인	연 령	2.68	1.08
		재 산	2.71	1.00
		학 력	3.14	1.03
		외 모	2.80	.89
		직 업	3.43	.99
		건강상태	3.49	1.00
		가정환경	3.37	1.11
		출생순위	2.53	1.14
	외적요인전체	3.02	.67	
	내적요인	매력정도	3.13	.91
		애정의 표현정도	3.35	.95
		유머감각	3.24	.98
		정서적 성숙	3.70	1.02
		대인관계의 원만성	3.91	.93
성 취 욕		3.71	.99	
내적요인 전체	자아분화도	3.63	.92	
	가 치 관	4.03	.86	
	성 격	4.27	.85	
	내적요인 전체	3.66	.65	
결혼만족도		91.75	15.21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른 배우자 선택요인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에 따른 배우자 선택요인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과 배우자선택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표 4).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교육수준, 결혼전 직업, 가족형태, 출생순위)에 따른 배우자선택요인의 차이는 배우자 선택의 외적요인의 경우, 출생순위가 중간인 집단이 배우자 선택시 출생순위를 덜 고려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결혼전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무직인 집단이 배우자의 가정환경을 더 고려하였고, 내적요인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이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과 가치관에 대한 고려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고졸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배우자의 자아분화도와 성격을 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결혼전 자영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배우자의 자아분화도와 가치관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장녀가 배우자의 자아분화도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가족의 형태(핵가족, 확대가족)에 따라서는 배우자 선택의 어떠한 요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변인(자아분화도,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에 따른 배우자선택요인의 차이를 보면, 외적요인의 경우

〈표 4〉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에 따른 배우자선택요인의 차이

변인	구분	N	외적요인									내적요인												
			출생순위			가정환경			정서적성숙			성취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육수준	고졸	99	2.53	1.16		3.32	1.19	B	3.50	1.02	B	3.43	.99		3.38	.88	B	3.74	.89	C	4.05	.97	B
		대졸	161	2.50	1.13		3.32	1.05	B	3.76	1.90	B	3.88	.95		3.71	.92	A	4.16	.81	B	4.35	.77	A
		대학원 이상	16	2.81	1.17		4.19	.98	A	4.38	.81	A	3.69	.95		4.31	.70	A	4.56	.63	A	4.81	.40	A
		F		.53		4.67*			6.09**			6.39**			9.70***			11.54***			7.63***			
	결혼전 직업	기능, 기술직	20	2.30	1.08		2.95	1.10	AB	3.20	.95		3.45	1.15		3.55	.94	A	3.70	.98	AB	4.00	1.12	
		단순노무직	5	2.60	1.14		3.00	1.22	AB	3.00	1.41		3.00	1.00		3.20	1.30	A	4.00	.91	A	4.20	.84	
		사무직	128	2.66	1.22		3.59	1.05	A	3.75	.90		3.77	.91		3.53	.84	A	3.95	.80	A	2.19	.87	
		서비스, 판매직	23	2.52	.95		3.17	1.11	AB	3.52	1.08		3.74	.96		3.65	.93	A	3.83	.94	A	4.09	.73	
		자영업	6	2.00	.89		2.50	1.05	B	3.50	.55		3.50	.84		2.50	.84	B	3.17	.75	B	4.83	.41	
		전문, 관리직	75	2.41	1.10		3.23	1.16	AB	3.85	1.16		3.75	1.07		3.92	.97	A	4.36	.82	A	4.48	.81	
	무직	19	2.47	1.12		3.53	1.12	A	3.79	1.03		3.63	1.07		3.68	.82	A	4.21	.85	A	4.37	.68		
	F		.78		2.51*			1.75			.81			3.36**			4.19***			1.99				
출생순위	장녀	77	2.75	1.20	A	3.39	1.24		3.73	1.05		3.81	.97		3.88	.78	A	4.01	.77		4.3	.81		
	중간	141	2.35	1.06	B	3.33	1.06		3.62	1.04		3.73	1.01		3.58	.98	B	4.04	.94		2.38	.90		
	막내	58	2.71	1.21	A	3.47	1.08		3.86	.91		3.52	.94		3.41	.90	B	4.03	.77		4.31	.80		
	F		3.72*		.33			1.16			1.50			4.81**			.03			.14				
심리적 변인	자아분화도	높은집단	35	2.27	1.31		3.60	1.42		4.06	.94		3.97	.89		4.03	.89	A	4.37	.73	A	4.69	.58	A
		중간집단	193	3.38	1.07		3.38	1.07		3.66	1.01		3.65	1.01		3.54	.92	B	3.98	.86	B	4.23	.88	B
		낮은집단	48	3.19	1.00		3.19	1.00		3.63	1.04		3.75	.93		3.71	.87	AB	3.98	.89	B	4.13	.84	B
		F		.93		1.40			2.49			1.66			4.49*			3.17*			5.17**			
	자아존중감	높은집단	37	2.49	1.22		3.68	1.13		4.03	1.01	A	4.00	.97	A	3.95	.91	A	4.24	.76		4.51	.87	A
		중간집단	201	2.50	1.13		3.34	1.11		3.73	.97	A	3.71	.94	AB	3.61	.91	AB	4.03	.88		4.28	.85	AB
		낮은집단	38	2.74	1.13		3.24	1.08		3.24	1.10	B	3.39	1.15	B	3.42	.95	B	3.82	.80		3.97	.79	B
		F		.73		.73			6.19**			3.61*			3.23*			2.35			3.90*			
	성역할태도	근대적집단	49	2.12	1.07	B	3.14	1.02	AB	3.76	.90	A	3.76	.90	A	3.76	.83		4.12	.81	A	4.35	.88	
		중간적집단	178	2.59	1.16	A	3.51	1.07	A	3.79	.97	A	3.81	.94	A	3.67	.90		4.08	.82	A	4.31	.82	
전통적집단		49	2.71	1.06	A	3.10	1.12	B	3.33	1.20	B	3.29	1.14	B	3.35	1.05		3.76	1.01	B	4.04	.91		
	F		4.09**		3.96*			4.21*			5.67**			3.00			3.20*			2.22				

높은집단·근대적 집단)M+SD,
M-SD≤중간집단≤M+SD,
낮은집단·전통적집단(M-SD

*p<.05 **p<.01 ***p<.001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D	변인	구분	N	M	SD	D	
연령	25세 이하	18	98.11	14.89		남편의 직업	농·수·축산업 단순노무직	5	72.20	14.41		
	26~30	169	92.60	14.93			기능·기술직	50	92.96	12.56		
	31~35	84	88.61	15.45			사무직	107	92.07	15.49		
	36 이상	5	92.80	14.62			서비스, 판매직	16	86.19	20.96		
F		2.47					자영업	34	91.79	14.04		
연령차 (남편-부인)	-1세 이하	8	101.5	14.76			전문, 경영관리직	59	92.49	14.74		
	0세	38	89.37	14.51			F		2.23			
	1~3세	111	92.53	16.25			생식가족 형태	핵가족	250	91.84	14.71	
	4~5세	94	90.19	14.13				확대가족	26	90.92	19.71	
	6세 이상	25	94.64	14.67				t		.22		
F		1.62				본인의 현재수입	100만원 이하	81	88.38	16.58		
결혼후 직업유무	유	138	88.86	14.76			101~150	118	92.81	14.31		
	무	138	94.64	15.15			151~250	63	93.65	13.65		
t		-3.22**					250 이상	14	93.79	19.12		
F		1.99					F		1.94			
결혼 년수	1년 미만	59	98.29	15.75	A	남편의 출생순위	장남	67	89.55	16.25		
	1년~3년	84	91.61	14.37	B		중간	135	91.35	15.09		
	3년~5년	133	88.94	14.70	B		막내	74	94.47	14.21		
	F		8.13***				F		1.95			
교육수준	고졸	99	88.69	15.10		자녀수	없다	73	98.30	15.18	A	
	대졸	161	93.23	15.29			1명	109	90.84	14.31	B	
	대학원 이상	16	95.81	12.36			2명 이상	94	87.72	14.73	B	
	F		3.40*				F		11.01***			

*p<.05 **p<.01 ***p<.001

중간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이 배우자의 가정환경을 더 고려하고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이 배우자의 출생순위를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태도가 배우자 선택시 고려하는 외적요인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내적요인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배우자 정서적 성숙을 덜 고려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성취욕, 자아분화도, 성격을 더 고려하였다. 그리고 자아분화도가 높은 집단이 배우자 선택시 배우자의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을 더 고려하였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의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 성취욕, 가치관의 고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여성이 지닌 자아분화도,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은 배우자 선택의 내적

요인 선호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주부의 연령·교육수준·직업유무·수입, 연령차, 결혼년수, 생식가족의 형태, 자녀수, 남편의 직업·수입·출생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표 5〉, 비취업 주부 집단, 결혼년수가 1년 이내로 적은 집단,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심리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표 6〉의 경우는 자아분화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근대적 태도를 지닌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취업주부의 증가, 의식화 등에 의해 사회

〈표 6〉 심리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D
자아분화도	높은 집단	35	101.63	14.94	A
	중간 집단	193	91.32	13.95	B
	낮은 집단	48	86.29	17.11	B
	F	11.35***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37	104.92	12.70	A
	중간 집단	201	91.38	14.04	B
	낮은 집단	38	80.89	14.06	C
	F	28.30***			
성역할태도	근대적 태도	49	96.73	15.84	A
	중간적 태도	178	90.94	15.07	B
	전통적 태도	49	89.69	14.29	B
	F	3.39*			

높은집단·근대적 집단)M+SD. *p<.05 ***p<.001
M-SD≤중간집단≤M+SD.
낮은집단·전통적집단(M-SD

적 역할 구분 개념이 더 융통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배우자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성격·가치관·정서적성숙·대인관계 원만성·자아분화도·건강상태·성취욕·매력정도·유머감각·애정의 표현정도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시 배우자의 외적요인보다는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내적요인의 고려정도가 전반적인 결혼만족과 더 연관이 됨을 나타낸다.

〈표 7〉 배우자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외적요인	연령	.007		매력정도	.149
	재산	-.068		애정의 표현정도	.103***
	학력	.007		유머감각	.113***
	외모	-.049	배우자의 내적요인	정서적 성숙	.306***
	직업	.059		대인관계 원만성	.291***
	건강상태	.213***		성취욕	.166***
	가정환경	.070		자아분화도	.261***
	출생순위	.020		가치관	.316***
				성격	.367***

*** p<.001

결혼이 오랜 기간동안 상이한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의 결합임을 고려할 때, 만족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성격 및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본 연구에서 선행되어진 분석에서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Durbin Watson(DW) 계수가 1.875로 2에 근접하고 있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보면〈표 8〉, 본인의 자아존중감($\beta = .39, p<.001$), 배우자 성격의 고려정도($\beta = .20, p<.001$), 자녀수($\beta = -.19, p<.001$)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결혼만족도를 3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배우자 성격의 고려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라는 Satir(1975)의 설명대로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표 8〉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 종속	변인	PR ²	β	F
결혼 만족도	본인의 자아존중감	.25	.39	90.92***
	배우자 성격의 고려정도	.07	.20	27.43***
	자녀수	.04	-.19	14.92***
	배우자 건강상태의 고려정도	.01	.09	3.30
	본인의 연령	.01	.10	3.11
	본인의 자아분화도	.01	.08	3.10
	본인의 성역할태도	.00	.07	2.14
	F	23.52***		
	R ²	.38		
	DW	1.875		

*** p<.001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1993)에서 20대와 30대의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배우자선택시 상대방의 성격고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것은 자녀수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성격, 능력, 소질, 덕성 등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배우자 선택시 상대방의 외적 조건보다는 성격이나 정서적 성숙과 같은 내적 요인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지속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라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배우자 선택과 결혼생활의 향상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17개의 배우자 선택요인 중 중간점수(3점)를 넘는 문항은 외적요인에서 건강상태, 가정환경, 직업, 학력이었고 내적요인에서는 성격, 가치관,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욕, 정서적 성숙, 자아분화도, 애정의 표현정도, 유머감각, 매력정도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내적요인의 고려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중간점수인 62.5보다 높은 91.75(SD=15.21)로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른 배우자 선택요인의 차이를 보면, 출생순위가 중간인 집단이 배우자의 출생순위를 덜 고려하였고 출생순위가 장녀인 집단이 배우자의 자아분화도를 더 고려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가정환경, 정서적 성숙, 자아분화도, 가치관을 더 고려하였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이 배우자의 성격을 덜 고려하였다. 또, 결혼전 자영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배우자의 가정환경, 자아분화도, 가치관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가족의 형태(핵가족, 확대가족)에 따라서는 배우자 선택의 어떠한 요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 태도가 중간인 집단이 배우자의 가정환경을 더 고려하고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이 배우자의 출생순위를 덜 고려하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이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 성취욕, 가치관을 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을 덜 고려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성취욕, 자아분화도, 성격을 더 고려하였다. 그리고 자아분화도가 높은 집단이 배우자 선택시 배우자의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을 더 고려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서는 결혼년수가 적은 집단, 자녀가 없는 집단, 주부의 직업이 없는 집단, 자아분화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성격·가치관·정서적 성숙·대인관계 원만성·자아분화도·건강상태·성취욕·매력정도·유머감각·애정의 표현정도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아분화가 잘 된 주부일수록, 배우자 성격의 고려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결혼만족도를 38% 설명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배우자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배우자선택시 고려했던 요인의 경우 외적요인보다는 대체로 내적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며 특히 성격의 고려도가 높게 나타나 성숙한 배우자선택의 태도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성격·가치관·정서적 성숙·대인관계 원만성·자아분화도·성취욕·매력정도·유머감각·애정의 표현정도 등의 내적요인과 건강상태와 같은 외적요인이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스런 결혼을 위해서는 배우자 선택시 외적요인보다는 내적요인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위되는 장(場)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부부관계지속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영역에서의 일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미혼인 남녀들에게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상대방의 내적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실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을,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 성취욕, 자아분화도, 성격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자아분화도와 자아존중감을 지닌 집단,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수준이나 자아존중감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스스로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갖고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내면의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 성장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주부일수록, 배우자의 성격의 고려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며, 무엇보다도 배우자 선택시 외적 조건에 치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내면에 가치를 두는 성숙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지역상, 표집상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해석시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 선택요인의 하위영역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임의대로 선정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문항의 다양성과 배우자선택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취업주부/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고선주(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 후 결혼적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5.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6.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4: 139-166.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7. 김미숙(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8. 김양희(1989).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9.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김화자(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11. 김혜경(1986).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2. 김혜선(1993). 배우자선택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2): 69-80
13. 김혜선, 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5: 67-112
14. 김희수(1993).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박민숙(1985).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6. 박태은(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도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39-150
 17.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8. 안해옥(1987). 미혼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의학계 미혼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 옥선화, 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20. 유영주(1979).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4:1-13
 21.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22. 유은희, 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23. 유은희(1974).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4. 이경애(1994). 도시부부의 배우자선택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지** 22(2)
 28. ____ (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1-27
 29. 이선주(1988). 기혼여성의 결혼관과 그에 관련된 결혼만족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30.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31. 이옥진(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 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김일명(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33.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9
 34.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35.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6. 이혜성(1989).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태도연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이대출판부
 37. 이효재(1979). 여성과 사회구조. **여성신학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8.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39. 정기원, 이상영(1992).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회**: 92-107
 40. 정민자(1987).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일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18: 105-126
 41.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42.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191-204
 43.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1999). **결혼학개론**. 상명대학교 출판부
 44. 조규현(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최규현(1988). 한국 도시부부들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 ____ (1990). **가정학연구 최신정보** III. 가족학분야. 대한가정학회
 47. ____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48. 최연실, 옥선화(1988).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83-97
 49. 통계청(1998). **인구동태통계연보**
 50.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51. Adams, B.N.(1979). Mate selection in the United Staes. **Family Interaction**, 259-265
 52. Adams(1980). **The Family**. Houghton Mifflin.
 53.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de), **Family Therapy**:

- 14 한국가정과학회지 3(2) : 13~26, 2000
Korean J. of Human Ecology 3(2) : 13~26, 2000

2-90. NY: Gardner Press

54. Bowman, H.A.(1970). *Marriage for modern*. N.Y: McGraw-Hill Book Co.
55. Bowman, H.A., Spanier, G.B.(1978). *Modern marriage*. N.Y: McGraw-Hill Book, Inc.
56. Burke, R.J., Weir, T.(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he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2): 78-287
57. Murstein, B.I.(1970). Stimulus-Value-Role: A theory of marital cho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466-470
58. Nye, F., Berardo, F.(1973). *The Family*. NY: Macmillian Publishing Co.
59. Osmond, M.W., Martin, P.Y.(1975).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44-758
60. Roach, A.J., Frazier, L.P., Bowden, S. 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61. South, S.J.(1991). Sociodemographic differential in mate selection re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28-940
62. Spanier, G.B., Lewis, R.(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40
63. Sp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95-618
64. Wooldredge, J., Scheon, R.(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1-71 and 197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65-481